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만군의 여호와 vs. 헛된 우상

15 "그분은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분별력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16 그분이 목소리를 내면 하늘에 많은 물이 있게 된다. 그분은 땅 끝에서 안개가 올라오게 하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 주신다. 17 모든 사람이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세공장이들 모두가 자신의 우상들로 수치를 당한다. 이는 그가 녹여 만든 우상들이 헛것이며 그것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18 그것들은 헛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그것들의 멸망의 때가 오면 그것들이 망할 것이다. 19 '야곱의 뭇'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와 그분의 이름이다."

• 죄값을 치르게 될 바벨론

20 "너는 내 쇠뿔이요, 내 전쟁 무기다. 너를 통해 내가 민족들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나라들을 멸망시키며 21 너를 통해 내가 말과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전차와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22 너를 통해 내가 또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늙은이와 젊은이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부수고 23 너를 통해 내가 목자와 그의 양 떼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농부와 그의 밭에 매인 소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부순다. 24 바벨론과 갈대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너희 눈앞에서 갚아 줄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의 뭇이 되어 주십니다. 반면, 바벨론이 섬긴 우상은 헛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며 섬긴 자에게 수치를 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여러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1. 바벨론이 믿고 의지한 우상은 어떤 것인가요? (17-18절)

반면, 야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5-16, 19절)

2.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엇으로 사용하셨나요? (20절)

시온에서 죄악을 저지른 바벨론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나요? (24절)

• 닦아가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며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두고 내 힘으로 해내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것에 기대고 의지하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회복 불가 바벨론** 25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의 산아,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26 사람들이 네게서 모퉁잇돌이나 주춧돌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27 그 땅에 기를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를 대적해서 나라들을, 곧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를 소집하라.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우고 곤두선 메뚜기들처럼 말들을 올려 보내라. 28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곧 메대의 왕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 29 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워져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30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돼 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자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들이 부서져 버렸다. 31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읍 전체가 함락됐으며 32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33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 같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34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수며 나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토해 버렸다. 35 나와 내 육체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고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3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네 소송을 변호하고 네 원수를 갚아 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37 바벨론은 폐허 더미가 되고 자갈의 소굴이 되며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38 그들이 모두 함께 어린 사자들처럼 포효하고 새끼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39 그들이 흥분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40 도살장에 가는 어린양처럼 숫양과 숫염소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3 묵상하기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멸망이 가까운 줄도 모르고 인생을 즐기며 취해 있던 바벨론(39절)은 가진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날이 되어 서야 비로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지 알 수 없어 끊임없이 자기들의 고통을 호소하지만(34-35절)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때가 아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니(33절).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온 집중을 다해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모든 현실 앞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부르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그때가 가장 선한 때임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구할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 ②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삶을 즐기며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41 어떻게 세삭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42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43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44 내가 바벨론의 벨을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

45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46 그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47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48 그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49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50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51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52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53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채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3 묵상하기

들리는 소문들이 막연하고 두려운 이유는 이것이 나에게 피해일지 이득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에게 들려오는 흥흥한 소문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46절).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은 마음 졸이게 하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47절). 그날이 오면 백성은 그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나와야 합니다(45절).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강제였지만, 나올 때는 백성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비록 다시 세워야 할 예루살렘의 현실이 암담하고 고통스러워도(50-51절) 최악의 도시, 타락한 문화, 익숙한 현실 속에서 나오는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회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적용하기

전염병이나 인본주의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며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하고 매력적인 세상에 타협하며 순응하던 삶을 버리고, 거기서 나오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요즘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소문은 무엇인가요?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바라실까요?
- ② 오늘 내가 과감히 거부하고 벗어나야 할 장소나 상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제 나의 영혼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흥흥한 소문에 마구 흔들리기보다 더욱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황폐하게 될 바벨론

54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55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의 소음이 터져 나온다. 56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57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5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바벨론

59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60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 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61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네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62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너는 말하여라. 63 네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64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3 묵상하기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 비해 유독 길고 자세하게 반복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만든 나라이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 지금 겪는 고난 또한 그렇습니다.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리고 높은 성문을 불태우실(58절) 만군의 여호와가 언제나 내 편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이유는 자녀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지금도 나를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 나를 단련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고난 속에 두시는지 원망이 될 만큼 아픈 적이 있나요?
그 속에 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 ② 모든 시련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은 회복과 성숙과 구원임을 안다면, 요즘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에 대한 내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아픔의 끝에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지혜롭게 지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포위된 예루살렘

1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립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2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3 여호와와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4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 벽을 쌓았습니다. 5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돼 있었습니다. 6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 사로잡힌 유다 왕 시드기야

7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8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9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10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11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 묵상하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52장부터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실을 추가해 기록한 부분입니다. 거듭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반응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11절).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자기 생각과 이익에 눈이 멀어 말씀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한 시드기야의 최후를 통해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들었으면 반응해야 합니다. 물론 반응하기까지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지만, 순종하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그저 '아는 말씀'이 아닌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 오늘도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매일 QT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요?
- ②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돌이킬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녀이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예루살렘의 멸망

1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3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14 경호 대장을 따르던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15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읍 안에 남아 있던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남아 있던 세공장이들을 포로로 끌어들였습니다. 16 그러나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은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 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 바벨론이 성전의 모든 기구와 물품을 가져감

17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18 그들은 또한 술, 부삽, 부집게,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19 경호 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 술, 촛대, 접시, 잔 등 순금과 순은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20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 하나와 그 아래 12마리 청동 황소 받침대 등 이 모든 집기들에서 나온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1 기둥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둥 하나에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었고 그 두께가 손가락 네 개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22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된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는 높이가 5규빗이었고 머리 주위에 그물과 석류가 달려 있었는데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석류들을 갖고 있어 그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23 그 사방에 석류 96개가 있었고 기둥 위로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다 합쳐 100개였습니다.

3 묵상하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이방 나라의 공격에 불타 무너지고 그 안의 모든 화려하고 풍성한 기구들을 남김없이 약탈당하고 마는 힘 없는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최악으로 완전히 몰들어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간 나는 세상과 사단이 언제나 무너뜨리고 약탈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성전을 성전이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지킬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악에 점령당한 악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지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악한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약탈당하는 연약한 존재인가요? 내 영혼의 상태를 깊이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무력한 상태라면,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빼낼까요?
- ②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다시 붙들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 몸이 겉모습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진짜 성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포로로 잡혀 간 사람들

24 경호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세 명의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25 또 군사들을 담당했던 장관 한 사람과 성읍 가운데서 찾은 일곱 명의 왕의 고문들과 그 땅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의 최고 서기관과 성읍 가운데서 발견된 그 땅의 백성 60명을 성읍에서 붙잡았습니다. 26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27 그 후에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28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 간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29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사람 832명, 30 느부갓네살 23년에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합해 4,600명이었습니다.

· 풀려난 여호야킨

31 유다 왕 여호야킨이 포로가 된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왕으로 즉위한 해 열두째 달 25일에 에월므로닥 왕이 유다 왕 여호야킨의 머리를 들게 하고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32 에월므로닥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33 그리하여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34 그의 쓰는 뭇은 바벨론 왕이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뭇을 죽는 날까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